

김용민브리핑

2016년 11월 11일 금요일

발행처 일곱시간행복그네

홈페이지 <http://www.podbbang.com/ch/9938>
 전자우편 kimyongminpd@gmail.com
 텔레그램 <https://telegram.me/kimyongmin>

60일의 건강보험증	02-766-1004
아름다운재단	www.beautifulfund.org
전통방식 숙성 최고의 맛은	1599-6456, 010-9384-7970
알싸한홍어	alssahan.co.kr
대한민국 1등 품질 홍삼은	041-754-0884, 010-9754-6972
정성농장홍삼	jeongseongfarm.com
안티요! 다이어트 쇼핑몰은	031-783-6007
비타샵	vitashop.co.kr
예쁜 구멍이 쏠! 장 청소는	070-4115-0365, 010-2892-0365
미궁장사랑	jangsarang.com
아이에서 어른까지 안심 사용하는	1688-9113, 031-717-1613
수아비스화장품	www.suavislab.com
한 번 가면 계속 가게되는	031-902-9292
풍무양고기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770 삼희포시즌프라자 2층
세계 최고 브랜드에 10년 품질보증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25번길 28
매트리스업	www.mattressm.com
진보가 만든 상품판매몰은	032-519-4800
내피알	nepr.co.kr
정통 포루투갈 에그타르트!	facebook.com/tartfarm13
에그타르트 타르트팜 키넥스점	고양 일산서구 대화동 2602 레이킨스몰 154호
김치맛 말고는 자랑할 게 없는	1544-4586
이담채김치	edamche.com
3D 실물 피규어 수공예품 제작	010-5633-6036
메이드바이어스	madebyus.co.kr
김영란법 걱정 없는 최고의 선물!	070-8635-1288
전창걸의새싹땅콩차	전창걸.com
축하 위로 고백 응원에는	1566-0263
좋은사람과플라워	flowergood.co.kr
월1만원 화재보험카페 그리고	02-849-9730
월7천원온전자보험카페	cafe.daum.net/7000kim
내 아이 믿고 먹을 수 있는	010-2443-0818
와우전복	wowabalone.modoo.at
한우 사육에 가마솥에 팔팔 끓인	010-7252-1114, 031-989-9968
연지연곰탕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6-5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아세요?

세계 최대 규모 핵발전소 밀집지역 있는 나라가
 원자력안전기구가 동시 및 중대사고 대비 없는 나라가
 지진 위험지대지만 내진설계는 20-30배 낮게 적용한 나라가
 사고 나지 않았음에도 갑상선암, 핵폐기물 등의 문제 발생을 야기하는 나라가
 이 많은 핵발전소를 안 만들어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걸요!
 원자력으로 불리지만 본질은 핵인
핵발전소를 반대합니다

우는 미국인을 위로합니다

김용민 / 김용민브리핑 대표 프로듀서



이번 미국 대선, 자신을 트럼프의 지지자라고 밝히기를 꺼려했던 백인들 때문에 여론조사의 무덤이 된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의 무덤은 미국만의 현상은 아니었습니다. 브렉시트를 예견 못한 영국도 비슷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총선, 한국의 일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의 1당은 의심되지 않았고 심지어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킬 의석수 180석까지 박근혜 정치세력이 휩쓸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왜 여론조사는 주요 고비마다 흑역사를 장식하고 있을까? 여론조사가 갖는 여러 기법상의 문제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유선전화의 비중이 상당하다든지, 젊은 층의 입장이 잘 반영되지 않는 맹점이 실효적으로 보완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지요. 기성 체제에 대한 변화를 갈구하는 층 그러나 그것을 말과 글로 표현하기엔 이미 엘리트에 의해 장악당한 그래서 고착화돼 버린 담론구조를 극복하기 힘들다고 판단하는 층의 반란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반란은 결코 옳은 선택일 수 없습니다. 어찌 논리와 상식으로써 트럼프의 부패를 정당화하고, 차별을 정당화하고, 부도덕을 정당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그냥 욕망에 투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2007년, 모두를 부자로 만들어준다는 이명박 씨에게 한국 국민 다수가 투표했듯 말입니다.

그런 이명박을 선택했던 것에 대한 반성이 있었을까. 2016년, 측정되지 못했다가 여소야대 표심으로써 박근혜 하야 요구로써 붕괴이 터진 한국 민심은 미국과 결이 많이 다릅니다. “이게 나라냐”라는 캐치 프레이즈에는 훼손된 민주주의와, 실종된 평등사회에 대한 비탄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거국적 염려가 기성 거대 언론에 의해 지속적으로 무시되고 외면됐으며 왜곡됐지만 그 때 그 때 사그라지지 않고 대다수 국민의 가슴 속에 아주 조용히 번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이번 선거를 계기로 천민자본주의를 무비판적으로 방치해왔던 지난날을 통찰하고, 혐오 대신 화합을, 차별 대신 상생을 지향하는 근현대 민주주의 선진국의 자긍심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도 9년 걸렸습니다. 좌절해서 쓰러진 뜻있는 미국 사람에게 큰 위로를 보내며 차별이 사라져 공동체가 완성되는 세상을 향한 큰 행보를 우선 우리 한 국민이 시작하겠습니다. 11월 12일 토요일, 수도 서울의 중심부를 지켜봐주시시오.

오 | 늘 | 의 | 김 | 용 | 민 | 브 | 리 | 핑

■ 11월 11일(금) 1부 | 엄청난 진실에 다가가는 '박근혜 보톡스'

[오프닝] 그 길 9년 먼저 간 한국인이 미국인을 위로하다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대통령 2선 후퇴, 위험 아니다”

-최순실, '복지부 찍어내기'도 개입 의혹

-최순실, 연설문 정도가 아니라 장관 수석 인사 개입도 확인

-최순실 '인티에이징' 단골 의사, 청와대에도 드나들었다

-“정윤희 문건 수사 때 우병우의 민정비서관실서 회유했다”

[뉴스듣기능력평가] 청와대 외 국가중요시설 관련 쿼즈

[국제뉴스의 맥] 황준호 외교통일전문기자

-정세현 김준형이 예측한 '트럼프 쇼크'와 한반도 전망

-박근혜와 트럼프 통화 발표..불안한 '한국 외교' 실상 노출

[경제의 속살] 이완배 민중의소리 기자

-미국 노동자들은 왜 트럼프를 선택하는 우를 저질렀나?

-'트럼프 승리' 예언 마이클 무어의 '감동을 주는 정치론'

[공화국 논평] 청와대 행정 허용 행정법원 판사에 대한 조치

전열 가다듬는 시민들

한국일보 '혼잡족' 들, 온라인에서 집회 준비 중

오는 토요일로 예정된 민중총궐기 대회는 현 정부 최대 규모의 시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집회 참가 시 주의해야 할 점을 검색해 보거나 관련 앱을 다운로드받는 이들이 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하던 지금까지 집회와 달리 '나홀로 참여족'이 많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한 SNS에는 '집회행동 수칙'이라는 카드뉴스가 널리 공유되고 있다. 경찰이 물대포를 쏘거나 최루액을 뿌리는 등 국가폭력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과거 독재정권을 경험한 50대 60대는 최루탄의 기억이 젊은 세대에는 물대포의 공포가 선명하게 남아있다. 하여간 내일 상상을 초월할 인파가 몰려들어 역사의 분수령을 만들 어낼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케 하는 소식이다.

야당 주장이 위헌이라고?

국민일보 "대통령 2선 후퇴 문제 없다"

국민일보가 거국중립내각과 대통령의 2선 후퇴 문제 등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조사했다. 헌법학을 전공한 법학 교수 15명은 이렇게 설명했다. 거국중립내각과 책임총리, 대통령의 2선 후퇴는 위헌이 아니라고 강조한 것이다. 대통령 박근혜 씨가 직은 유지하고 있으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비상사국이라는 점을 전제로 했다. 또한 헌법이 규정한 국가원수의 군 통수권도 책임총리에게 위임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부 헌법학자들은 '책임총리는 내치를, 대통령은 외치를 맡도록 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내치와 외치를 사실상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보톡스 스캔들 서막 열리다

경향신문 최순실 단골 '차병원' 도 혜택 의혹

지난 5월 대통령 박근혜 씨는 '비동결난자'의 연구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동결난자 연구는 박근혜 씨와 최순실의 단골병원인 차병원의 숙원사업이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던 보건복지부 담당 과장은 발령을 받은지 4개월만에 보직이 변경됐고, 직원 2명도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최순실이 단골병원인 차병원의 숙원사업이 해결되도록 정부에 압력을 넣었고 이를 반대하던 공무원들이 경질성 인사를 당한 모양새다.

경향신문 보톡스 전문의가 청와대로 간 까닭

다시 차병원 이야기다. 최순실의 단골 병원인 차음병원의 의사가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 박근혜 씨를 진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음병원 측에 따르면 안티에이징 전문의 김모 씨는 2011년부터 박근혜 씨를 치료했으며 2014년에는 정식으로 퇴사를 했다. 이후 김모 씨는 박근혜 씨의 가정의학과 자문의가 되어서 청와대로 박근혜 씨를 진료하러 갔다. 안티에이징, 이거 보톡스 맞는 거지?

조폭 정치의 실상

한겨레 사정기관이 3년 넘게 '특정인' 괴롭혀

김영재 성형외과는 최순실의 단골병원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김영재 원장과 특허분쟁을 벌이던 중소기업이 사정기관으로부터 표적 수사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014년 김영재 원장은 의료기기업체 이동수 대표가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청에 심판을 제기했다. 그러자 해당 중소기업은 그해 3월 서울세관 특수조사팀에 의해 압수수색을 당하고 이동수 대표는 서울세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어서 2014년 7월에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2015년 9월에는 서울 중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이 조사에 나섰다. 또한 한달 뒤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이 "탈세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이동수 대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경찰 조사를 거쳐 이동수 씨는 기소됐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東亞日報 崔 측근, 세무조사로 정유라 비호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 대표 선발전에서는 심판들이 정유라에게 너무 높은 점수를 줬다. 이에 한 학부모는 정유라의 점수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을 요청했다. 그러나 당시 승마협회 박모 전무는 이 학부모에게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으니 더 이상 항의를 하지 말라고 강요했다. 건설사를 운영하던 이 학부모는 박 전 전무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다. 박 전 전무는 최순실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유라의 판정에 관여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점점 드러나는 국정농단의 실체

東亞日報 차은택 "崔에게 정부 인사 청탁했다"

진술에 따르면 차은택은 외삼촌인 김상률 숙명여대 교수를 대통령교육문화수석에, 지도교수인 김종덕 씨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측근인 송성각씨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임명해 달라고 최순실에게 청탁했다.

노종면 김용민 정상근 국민TV 토요일 생중계
2016 총궐기를 맞이 하.야

이들 3명은 차은택이 최순실에게 청탁을 한대로 대통령 박근혜 씨가 임명했다. 최순실이 정부 핵심 인사에까지 직접 관여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미진한 검찰 수사

국민일보 **최, 체포된 후에도 증거자료 빼들려**

최순실이 검찰에 체포된 뒤에도 증거자료를 빼들린 사실이 드러났다. 최순실은 '더블루케이'를 폐업한 지 한 달 만에 또 다른 '기획법인'을 세웠다. 지난 9월 독일로 출국하기 하루 전날 '더운트'를 설립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더블루케이 압수수색에 들어갔을 때 사무실은 텅 빈 상태였는데, 더블루케이의 컴퓨터와 집기들은 이미 '더운트'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달 30일 최순실이 귀국한 다음 며칠 뒤에는 '더운트'의 사무실로 남성들이 찾아와 컴퓨터와 서류모치, 대형금고를 외부로 빼냈다고 한다.

경향신문 **안종범 “청와대에서 슈킹 논의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검찰에 이렇게 진술했다. “롯데로부터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내도록 청와대 회의에서 논의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대통령 박근혜 씨의 방조하에 청와대에서 이뤄진 셈이다. 하지만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은 결과적으로 롯데로부터 70억원을 모금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진술했다. 롯데에 대한 검찰의 수사 가능성이 제기되자 청와대 회의에서 기금 모금 중단 결정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당시 검찰 수사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이 과정에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청와대문건유출 사건...뭘 덮으려고

중앙일보 **덤터기 쓴 최경락...며칠 뒤 ‘자살’**

한일 전 서울경찰청 경위는 2014년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핵심 피의자였다. 정윤희가 비선실세로 활동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였다. 그런데 한일 전 경위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협조를 종용했다고 한다. 청와대 문건을 최경락 경위에게 넘겼다고 진술하면 불기소하겠다고 회유한 것이다. 이후 한일 전 경위는 “최경락 경위에게 문건을 넘겼다”고 검찰에서 진술했고, 최경락 경위는 언론에 이 문건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최경락 경위는 검찰 수사를 받고 닷새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경락 경위는 유서에 '민정비서관실에서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흔들리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썼다.

경향신문 **“김기춘이 ‘사법부 길들이기’ 지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법부 길들이기를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의해서 밝혀진 내용이다. 비망록에 따르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때 “법원이 지나치게 강대하다” “법원을 길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과 협상을 하며 모든 방법을 동원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또한 대한변협 등 변호사협회를 주시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비망록에는 보수 시민단체를 통해 2014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을 고발하도록 한 정황도 포함돼있다.

아직 족지 않은 우병우

朝鮮日報 **고발 114일만에 자택 압수수색**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최순실의 국정 농단을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은폐하려 했으며 시민 단체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고발한 지 114일 만이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K스포츠재단이 롯데 그룹에 70억원을 요구했다가 돌려주는 과정에서 내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東亞日報 **당연히 국정농단 파악 했을 것**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이성환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의 정보를 수집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대기업을 상대로 강제 모금을 벌이던 사실을 민정수석실이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대통령 박근혜 씨와 최순실,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다는 점을 인지했을 개연성이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무 유기와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을 밝히기 위해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중앙일보 **여전히 우병우에 벌벌 기는 검찰**



검찰이 검찰청사 창문을 창호지로 가렸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팔짱을 낀 채 웃음을 짓고 있는 모습이 조선일보 카메라에 포착된 지 4일만이다. '황제 소환' 사건으로 논란을 빚은 검찰이 추가적인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창문을 가린 것이다.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지만 '황제 소환'의 논란은 쉽게 식지 않고 있다.

/ 사진=중앙일보

트럼프 쇼크

경향신문 트럼프 됐으니 총리 뽑아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대통령 리더십'이 붕괴된 대한민국에 '트럼프 쇼크'가 덮쳤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경제·안보 환경의 불안 정성이 커진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와 친박세력은 트럼프 쇼크를 자신들의 위기 탈출 기회로 삼고 있다. 청와대는 트럼프 쇼크에 대응을 위해 한시바빠 총리를 추천해달라고 야권을 압박했다. 야권이 총리 추천을 거부하면서 국정공백이 길어지고 위기 극복도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트럼프 쇼크를 빌미 삼아 '위험한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경향신문 트럼프 '승리 신호' 넘쳤다

미국 정치 평론가들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승리에 놀라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의 승리 신호들은 계속 나오고 있었다. 우선 이번 대선은 버락 오바마 집권 8년이 끝나는 시점에서의 선거였다. 대통령 8년차인 해는 늘 집권세력 심판의 해로 여겨진다. 둘째, 민주당은 트럼프의 전략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트럼프는 노동계급과 소외된 유권자들이 겪고 있는 곤경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말하면서 선거 지형을 바꿔놓았다. 셋째, 민주당이 유명인 또는 할리우드 스타들과 정치 집회를 하는 것은 선거에 별로 도움이 안된다. 이 모습은 민주당이 엘리트주의적이며 평범한 미국인들과 괴리돼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전문가들은 공화당이 백인 표만 얻어서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틀렸다. 오바마가 출마한 대선을 제외하면 소수계 유권자들의 투표율은 백인들의 투표율을 한 번도 앞지르지 못했다.

오늘의 칼럼

경향신문 "백성이 근본이다"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의 경향신문 칼럼 "백성이 근본이다"가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이다.

"국정은 이미 지난 몇 년간 표류해왔고, 공백상태였다. 장관과 공무원들은 대통령이 보고를 요구하지 않으니 속으로는 편하게 됐다고 생각하고 각자 알아서 권력자들 눈 밖에 나는 일만 없도록 조심하고 있었다. 창조경제는 원래 실체도 없고 엉망진창이다. 대통령은 언제나 원고를 또박또박 낭독은 잘했으나 자유 대화, 자유토론을 하는 걸 본 적이 없다. 대통령은 있으나 마나 한 존재였다. 그러니 지금 대통령 그만둔다고 국정공백 생길 리 없다. 오히려 빨리 하야하고, 새 대통령 뽑는 게 국정공백을 줄이는 길이다.

대통령 그만둔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다. 맹자가 말했다. "나라에 백성이 근본이고, 사직은 그 다음이고, 군주는 가볍다

(民爲本 社稷次之 君位輕)." 대다수 국민의 눈에 이미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다. 외치·내치 구분해서 말기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통령은 해외에서 비웃음의 대상일 뿐이다. 대통령직 오래 유지해봤자 국정 혼란과 공백이 길어질 뿐이다.

박 대통령에게 마지막 남은 애국심이 있다면 국민에게 이실직고하며 용서를 빌고 하루빨리 하야해야 한다. 호가호위하면서 저질 정치를 해온 새누리당 친박들은 석고대죄하고 정계를 떠나야 한다. 야당은 이 문제를 미온적으로 대하지 말고 가차 없이 하야를 요구해야 한다. 오직 촛불, 민심이 천심이고 백성이 근본이다."

11월 12일 민중총궐기 참가자 준비사항

2016.11.10.

- 당일 서울 도심은 극심한 교통정체가 예상됩니다. 지하철을 이용해서 이동해주시길 바랍니다.
- 단체로 오시는 분들은 서울에 진입하기 전에 하차하여 지하철로 이동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늦어도 집회 시작 30분 전에는 도착할 수 있도록 움직여주시길 바랍니다.
- 당일 1, 2호선 시청역과 5호선 광화문역으로는 출입이 어렵습니다. 1호선 종각역이나 2호선 을지로입구역, 4호선 회현역 등을 이용하여 도보로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 간단한 먹거리와 마실 물 등 비상식량은 준비해 오시길 바랍니다.
- 비가 올 수도 있으며, 동시에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집회로 방한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비, 방한복, 텐트, 침낭, 깔판 등을 준비해 옵시다.
- 당일 참가자가 대단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최 측에서 준비한 초와 손피켓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 가능하시면 초와 개인 피켓을 준비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당일 오후 4시 민중총궐기대회 이후에 참가자들이 시민들과 함께 국정농단 헌정파괴를 일삼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청와대로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 에워싸기 국민대행진>이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참가하기 힘든 분들은 인터넷 생중계로 시청해주시길 바라며, 민중총궐기투쟁본부 공식계좌로 후원을 요청드립니다.
*후원계좌 농협 302-1066-1087-11 이승철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청와대 인근에 있는 환경운동연합이 띄운 애드벌룬